

보성군-더벤처 '차(茶)의 전통과 혁신이 만나다'

보성차 활용 신메뉴 4종 출시 3월부터 전국 1300곳 첫선 상생음료로 보성차(茶)산업 통해 관광 공동 마케팅 나서

보성군은 27일 국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주)에스앤씨세인(더벤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성차를 활용해 더벤처에서 신메뉴를 개발하고 보성차(茶) 소비증진 및 보성차산업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서 더벤처와 보성차 공동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 관측 활동(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벤처는 오는 3월 보성차를 활용한 혁신적인 신제품군인 ▲말차 아인슈페너, ▲말차 멜팅초코, ▲말차 코코넛셰이키, ▲말차 유자에이드를 전국 1,300여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들은 보성차의 풍부한 맛과 향을 현

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차 소비의 새로운 추세(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성군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행되는 효율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상생 사례로서 양 기관은 이를 통해 보성차 산업의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더벤처 박수암 대표는 "보성의 역사 깊은 차 문화와 더벤처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능력이 만나 차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차의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차 소비가 주산지 관광과 연결돼 보성군의 관광산업도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은 보성차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보성을



보성군 김철우 군수와 커피 프랜차이즈 (주)에스앤씨세인(더벤처) 박수암 대표가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며, "더벤처와 협력을 통해 보성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 조성 주민설명회 화정면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사업 설명·주민의견 수렴

여수시가 지난 27일 화정면 개도마을 복지회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정면 개도가 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섬 내 연계사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우선 시는 개도마을 중심 바다를 막은 15만7천㎡의 간척지에 공원과 농어업체험, 힐링·휴양 테마파크를 포함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나선다.

또 섬박람회 부행사장 전시관으로 활용될

섬어촌 문화센터는 섬의 가치 이해 및 중요성을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며, 센터 주변에는 섬섬캠핑장을 마련하고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는 개도 전설로 전해오는 마녀목에 얽힌 사연을 마녀목공원과 조형물로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화태-백야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교량건설 절대공기가 소요돼 박람회 전 준공의 어려움이 있으나, 백야-개도 구간이 섬박람회에 맞춰 임시 개통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생애복지정책 안내서(e-Book) 배포

태아기~노년기 촘촘하고 두터운 360여 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수록

광양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광양시 생애복지정책 안내서(전자책, e-Book)'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홍보물이 종이 책자로 배부돼 시민 모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책자(e-book)로 제작됐다.

안내서는 촘촘하고 두터운 광양시만의 특별한 복지체계인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성하는 360여 개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미처 몰랐던 복지정책, 훗날 필요한 복지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6장) 외에도 소상공인·영농인, 취업·창업, 보건·의료,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보호대상자 등 분야별 복지정책(3장)을 부문별로 나눠 함께 수록했다.

안내서는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시청 민원실 등에 배부되며,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스마트폰으로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아울러, 하반기에 배포되는 개정판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책들을 수록해 개인별로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시민들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김중호 감동시대추진단장은 "시민 모두가 복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양시 모바일 앱 개발, 시정 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 맞춤형 홍보 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청년 단기일자리 창출 집중...사업장 관심 ↑

순천시는 1년 이내의 청년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단기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당초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2년간 인건비 지원 후 정규직 전환된 청년근로자에게 1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일 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기 위해 잔여 사업예산을 활용해 청년 단기일자리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단기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와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단기일자리사업에 참여할 13개 사업장을 모집해 지난 2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모집의 경쟁률은 3대 1에 달했다.

선정된 참여사업장은 공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청년근로자를 모집한 후 시의 근로자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월 최대 180만원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 청년근로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 유지 시 정착지원금 월 20만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미래농업대학 교육생 모집...오는 3월 14일까지

고흥군은 전문 농업인 양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2024년도 고흥 미래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흥 미래농업대학은 3월부터 10월까지(21회 85시간) '아열대 작물반'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에플망고, 백향과, 만감류 등) ▲유통, 농산물 마케팅 ▲농기계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 등을 병행하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의 75% 이상 이수해야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신입생 선발인원은 50명으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도내 농업인, 여성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산입팀)에서 입학원서를 교부 받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미래농업대학은 전문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통해 전문적인 농업 인력을 육성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기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아열대 재배 교육에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